



#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 16th National Online Meeting/DB EXPO '95 참관기

Database Industry Ripen as National Infastructure in U.S.A.



이창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개발지원과 과장  
Lee, chang-han./Public Database  
Development Div. Development &  
Supporting Section Manager. Database  
Promotion Center Of Korea.



## 개요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한국언론  
연구원 등 19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30  
여명으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7  
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두개의 데이터베이스 전  
시회를 다녀왔다.

이번에 개최된 "The National Online  
Meeting"과 DB/EXPO"는 영국의 "Online  
Information Meeting", 일본의 "Tokyo  
Database Show"와 함께 가장 권위있는 데이터  
베이스 전시회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번 참관을 통하여 현재 가장 발달된 형태의 데이



▲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를 발간하고 있는  
「게일리서치」사의 임원진과 회의를 마친후 기념사  
진을 찍고 있는 필자(왼쪽에서 첫번째)

# 데이터베이스산업

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지원 기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뉴욕 힐튼 호텔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The National Online Meeting"은 올해로 16 회째를 맞이하며 "Information Today", "Link Up" 및 Searcher: The Magazine for Database Professionals" 등 데이터베이스 전문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Learned Information 社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동 전시회는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 서비스 기관 등 200여개 전문업체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중심으로 출품하고 있었으며 전세계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약 7,000여명이 참관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콘 컨벤션 센터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DB/EXPO '95"는 전세계를 무대로 매년 200회 이상의 전시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Blenheim NDN社가 주관하며, Computer world社를 비롯한 8개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동 전시회는 IBM, Microsoft를 비롯한 290여개처의 세계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체들이 최신 정보 기술 제품을 출품하였다.

## 16th National Online Meeting 의 주요 내용

전자 정보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National Online Meeting"은 일반 온라인 정보서비스 부문, "IOLS '95 Exhibitors"라고 명명된 온라인 도서관 시스템 부문, CD-ROM Gallery"라고 명명된 CD-ROM 부문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과 서비스기관이 주축으로 출품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은 LI사의 토머스 호건 사장의 인사말중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구분에서도 나오듯이 데이터베이스 출판기관(Data-base Publisher) 혹은 내용 전달기관(Content Provider)등으로도 부르고 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정보전달의 중심이었던 인쇄매체로부터 발전 과정에 기인되며, 실제로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고 있는 McGraw-Hill 출판사, Gale社, Thomas출판사, Derwent社 등 대형 출판사들이 주요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을 살펴 보면 분야별로 전문화 되어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50년 이래 공보된 2백 5십만건의 미국 특허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인 Claims를 Dialog, Orbit/Questes 및 Stel을 통하여 제공되는 IFI/ Plenum Data社, 전세계적으로 200개국가의 천 2백만 기업의 텔레마케팅 리스트, 재정상태 및 기업 협력 현황 등의 기업 정보를 제작하는 Dun & Brad-Strret社, 전세계 만개 이상의 은행의 재정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인 Eurastar를 제작하는 Eurastar/Sleigh社, 생명과학분야의 초록과 색인을 수록한 Biosis社 등이 출품하였다.

온라인서비스 기관으로는 세계적인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인 Dialog와 유럽의 Datastar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분야의 50여 CD-ROM 타이틀을 제공하는 KR Information Ondisc 및 문헌팩시밀리 서비스인 Dialog SourceOne 서비스를 운영하는 Knight-Ridder Information社, 미



국내외 신문 정보와 비즈니스/재정/법률 등의 데이터베이스서비스는 LEXIS NEXIS /Mead Data Central社, 온라인 전문 서비스 선택 기능과 WWW(World Wide Web) 브라우저 액세스를 제공하는 FirstSearch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비즈니스문헌 정보인 ABI/Inform, 미국문교성의 교육 문헌 정보인 Eric, Biosis社의 생물 및 생의학 정보인 Basic Biosis, 천개이상의 저널의 전문을 온라인 Ascii 전송 혹은 팩스전송을 가능케하는 Fastdoc 등 60여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社, 2천 2백여종의 비즈니스/무역 출판물로부터 3천 5백만 기사정보와 The Wall Street Journal” 등 4개 신문의 전문을 독점적으로 윈도우 환경의 Dow Jones News/Retrieval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Dow Jones & Company社, 지적재산권/화학/비즈니스/뉴스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Orbit/Quetel 등이 출품하였다.

한편 IOLS '95 첫째날 “Directory of Library Automation, Software, Systems, and Services”의 편집장인 Pamela Cibbarelli씨가 네트워크 시대의 IOLS”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자출판의 영향으로 사서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 자원이 기존의 정보전달 시스템과 서비스의 개념을 변화시켜 왔으며, 도서관 자동화의 문제가 한때는 시스템 사서들의 영역이었으나 참조사서, 대학사서, 수집사서 등 전부분의 사서들이 직면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도전해야 되며, 지역 시스템이 네트워크에서 혜택을 보고 있듯이 사서들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조 연설을 하였다. ILOS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도서관과 인터넷, ILOS/인터넷, 인터넷을 통한 전문정보 등 인터넷과 도서관 시스템에 관련된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ILOS 전시관에서는 American Library

社, EBSCO Information社, Library社 등 25개 기관이 도서관 시스템 및 서비스 상품을 전시하였다.

## DB EXPO '95의 주요 내용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주제로 한 DB/EXPO '95는 크게 5일간 개최된 컨퍼런스와 900 부스이상의 대규모 전시회로 구분된다. 최근의 급변하는 기술과 이러한 기술이 정보기술 경영인, 개발자, 관리자 및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는 최근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서버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벌어지는 동향을 브리핑 스타일로 개요를 알아보는 경영자를 위한 컨퍼런스, 기업 컴퓨팅 트랙/클라이언트 서버 응용개발 트랙/클라이언트 서버 제품과 패키지 트랙/객체지향 개발 트랙/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트랙/데이터베이스 기술 발전 트랙 등의 깊이 있는 최근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 컨퍼런스, 기업 네트워크와 연결성 트랙/이동 및 무선 컴퓨팅 트랙/그룹웨어와 업무 흐름 컴퓨팅 트랙 등의 주제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상호 운용성 컨퍼런스, 데이터웨어하우스 개발 트랙/병렬 컴퓨팅 트랙/데이터 접근과 데이터 개발 트랙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병렬 컴퓨팅 컨퍼런스 등으로 구분하여 개최되었다. 한편 전시회는 “정보 기술의 접합(Piecing IT together)”이라는 부제에서도 짐작이 가듯이 출품한 최근의 정보 기술을 36개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3세대 언어/분석 및 설계/응용 개발 툴/4세대 언어/응용 미들웨어/클라이언트 서버 백엔드/클라이언트 서버 프론트 엔드/복사 관리 및 데이터 웨어하우징/데이터베이스 관리 툴/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데이터 사전 및 참고/데스크탑 DBMS/엔드유저 툴/엔드유저 의사 결정/엔드 유저 질의어 및 접근/엔드 유저 리포팅/경

영 정보 시스템/전문가 시스템/멀티미디어/GUI 빌더/이미징/통합 CASE/이동 컴퓨팅/자연어/객체지향 DBMS/객체지향 개발/리엔지니어링/관계형 DBMS/시스템 관리 툴/시스템 통합 및 컨설팅/텍스트 검색/트랜잭션 매니저/UNIX DBMS/영상 및 음성/워크스테이션, 서버 및 LAN 하드웨어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IBM社는 데이터 관리, 응용 개발 및 워크그룹 영역에서 고객 지향의 솔루션으로서 "VisualAge", "Visual Gem", "Ultimedia" 등과 멀티플랫폼과 멀티벤더 솔루션으로서 "DB2 for H/P", "DB2 for Solaris", "DB2/2", "DB2/ 6000"으로 구성된 DB/2 패밀리를 출품하였다. 또한 IBM社는 별도의 인터넷 파빌리온 부스를 설치하여 인터넷상의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실연하였다.

IBM社와 함께 세계 정보기술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icrosoft社는 개발자 전용 부스를 설치하여 Window 95, Microsoft Client/Server 솔루션, BackOffice 솔루션 등을 출품하였다.

이외에 Dynamic Scalable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Online Dynamic Server", 개방형 그래픽 객체지향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지원하는 "NewEra" 등을 출품한 Informix Software社, Oracle 7 패밀리를 출품한 Oracle社 등 많은 DBMS관련 회사와 벤처 소프트웨어하우스가 한 자리에 모였다.

## 맺음말

이번 두개의 전시회를 통하여 느낀점은 우선 전문화된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전달을 중심으로 한

"National Online Meeting"과 데이터베이스 지원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한"DB/ EXPO"의 차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듯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전달 기술과 지원기술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은 한 분야의 전문 기술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국의 풍부한 시장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도를 비롯한 제3세계의 저렴한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의 전문정보를 가공 대행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 대행사인 Corp Tech社를 보면 미국의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산업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CD-ROM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각각 상대방의 시장을 더욱 늘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서비스 기관과 제작기관은 부산물의 형태로 CD-ROM 타이틀을 제작하여 왔으나, Knight-Ridder, Information社의 Dialog Ondisc 서비스와 같이 초기 제공된 CD-ROM 파일에 정기적으로 온라인 갱신할 수 있는 툴과 같은 기능들이 여타 온라인 서비스 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검색 인터페이스인 인터넷의 WWW Mosaic에도 화상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유사한 형태의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CD-ROM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보완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여건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특정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삼 느꼈다.

국가 정보원의 발굴, 효과적인 가공 체제, 국내의 환경에 적응하는 정보 기술의 개발 등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체제 확립에 노력할 때이라고 생각한다.



database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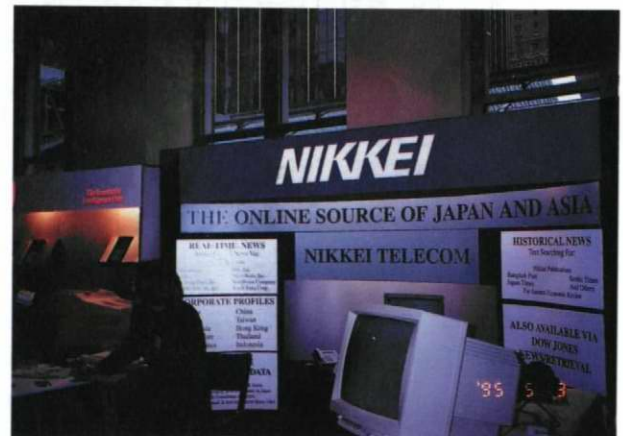
## 온라인 미팅 / 데이터베이스 EXPO '95



▲IBM의 스티브 밀씨가 「21세기의 정보사회의 방향」에 대하여 기초 연설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WWW의 검색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제품이 많이 보였다.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일본경제 신문사』가 뉴욕 온라인 인포메이션 전시회에 참가 했다.



▲「데이터베이스/EXPO '95」 전시회의 등록데스크의 모습



▲세계최대 정보서비스 업체인 「Knight-Ridder Information」사의 부스

▶뉴스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컴텍사의 부스전경



▲온라인 인포메이션 뉴욕전시회의 주최자인 「인포메이션 투데이」사의 호건사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의 장원홍 전무와 국제 협력회의를 마친후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 '95

## 온라인 미팅/데이터베이스 EXPO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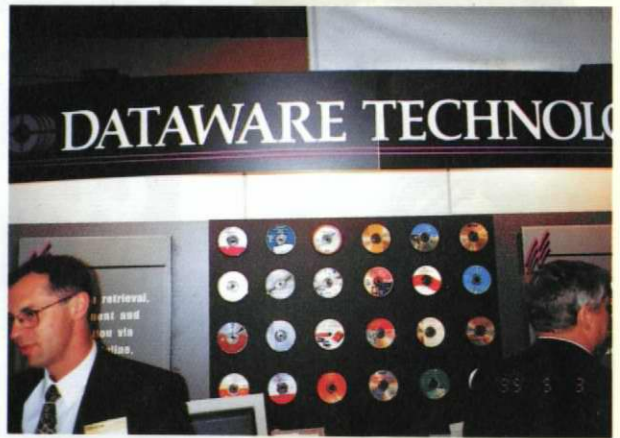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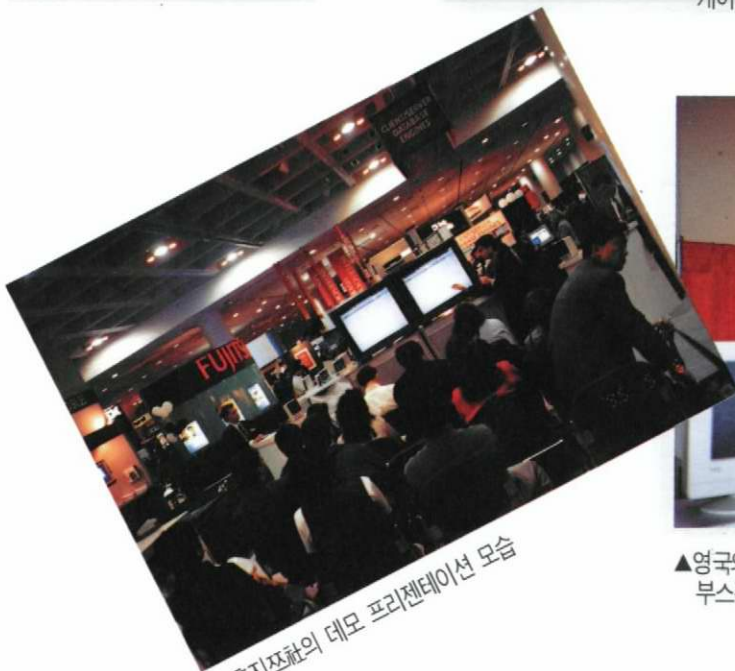
▲한국참관단이 「Knight-Ridder Information」사를 방문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태극기가 회사기와 함께 나란히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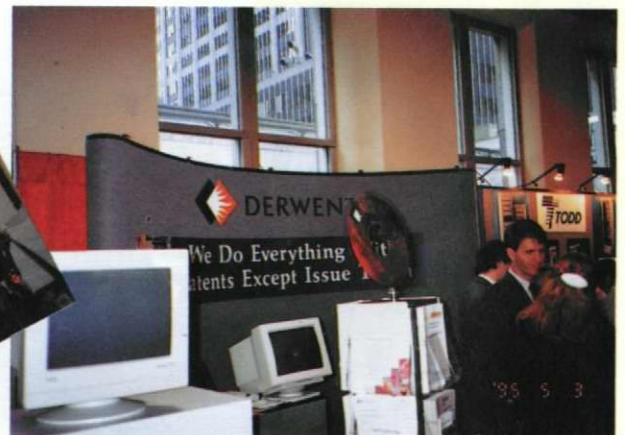
▲뉴스 및 법률정보 서비스를 전시하고 있는 'LEXIS-NEXIS' 부스



▲CD-ROM 타이틀 전문업체인 「데이터웨어 테크놀로지」사의 부스 게이아웃이 인상적이다.



▲후지쯔사의 데모 프레젠테이션 모습



▲영국의 최대 특허,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업체인 「DERWENT」사의 부스전경